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2.24(금) ~ 2023.03.02(목)

제공일시 2023 03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2.24(금) ~ 2023.03.02(목)

제공일시 2023 03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伊, EU 전기차 전환 제동 “독일·프랑스와 공동전선 모색”

-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내연기관차 완전 판매 금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프랑스, 독일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음 아돌포
- 우르소 비즈니스 및 이탈리아산 담당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방송 TGcom24와의 인터뷰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이념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EU는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EU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서 지나치게 급격한 목표치를 설정했음며 반발함
- 우르소 장관은 내연기관차 완전 판매 금지 시점을 EU가 정한 목표보다 늦추기 위해 프랑스, 독일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유럽의 3대 산업 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힘을 합치면 유럽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신했음

(연합뉴스, 2023.02.26) 신창용 기자

### 2. ‘화석연료 자금 지원’ BNP파리바 피소...“은행 상대 첫 기후소송”

- 유로통화권 최대 규모 은행인 프랑스의 비엔피(BNP)파리바가 화석연료 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줘 기후위기를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기후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음
- 지구의벗프랑스, 옥스팜프랑스 등 프랑스 비정부기구(NGO) 3곳은 23일(현지시각) ‘기후 혼돈의 자금 제공자를 법정에 세우기’라는 자료를 내고, 비엔피파리바가 석유와 가스 회사에 자금을 댄 것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음고 밝혔음
- NGO들은 비엔피파리바가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여 지구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비엔피파리바는 <로이터>에 엔지오들이 대화 대신 소송을 선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을 즉시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한겨레, 2023.02.24) 김규남 기자

### 3. 영국, 벨기에 등 PFAS 오염규모 지도 파악 논란

- 영국과 유럽 전역 수천 곳에서 영구 화학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합물(PFAS)의 오염 지도 프로젝트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음
- 영국에서는 오염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는 논의와 당장 더 엄격한 규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옴
- 가디언과 워터린이 환경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약 120개 식수원 샘플에서 PFAS 관련 농도가 100ng/l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영국과 유럽 전역 1만7000개 장소에서 발견되었으며, PFAS는 약 640곳에서 물 1리터당 1,000나노그램 이상의 고농도로, 300곳의 물 1만ng/l 이상에서 검출되어 장소로부터 15km 이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원에 산란된 달걀을 먹지 말고 집에서 기른 채소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The Guardian, 2023.02.25)  
Sandra Laville, Rachel Salvidge 기자

(Euractiv, 2023.02.24)  
Leana Hosea, Rachel Salvidge 기자

## 1.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연평균 27.6% 급성장...각국 쟁탈전 치열/ 600조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사활건 韓기업

-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27.6%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폐배터리시장도 600조원 규모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다음달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핵심광물원자재법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라,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함
- 포스코는 지난해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 화유코발트와 합작법인 '포스코HY클린메탈'을 만들고, 지난 23일 재활용 공장을 본격 가동함
-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2월 BMR 사업과 관련해 시험 생산 공장(Demo Plant)을 완공한 데 이어, 성일하이텍과 함께 연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이데일리, 2023.02.26) 하지나 기자  
(전자신문, 2023.02.26) 이준희 기자

## 2. 환경부, EU 탄소국경제도 국내기업 지원 전담반 구성

-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대응반을 최근 구성했음고 27일 밝혔음
-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대응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을 모아 기업 지원에 나섬
- 전담반은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유럽연합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전담반은 배출량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28일 협의체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임

(뉴스1, 2023.02.27) 황덕현 기자

## 3. 골칫덩이 '폐비닐', 원유로 되돌린다...기업 손잡은 서울시

- 서울시가 국내 주요 정유, 화학기업들과 손잡고 '폐비닐 재활용'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임
- 서울시는 복수의 기업들과 폐비닐-폐플라스틱 수거 관련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인데, 대상 기업으로 SK·LG·GS·HD현대그룹 등의 정유·화학 계열사들이 거론됨
- 폐비닐이나 오염된 플라스틱은 재활용 자체가 어려운 쓰레기로, 300~800도의 고열에 가열해 일종의 '원유' 상태로 되돌리는 '열분해 추출'이 거의 유일한 재활용 방법임
- 국내 정유·화학 기업들은 2024~2025년 '도시 유전' 시설·공장을 갖추고 사업에 본격 뛰어들 계획을 갖고 있어, 쓰레기 처리에 고심인 서울시 입장에서도 막대한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 원원으로 여겨짐

(머니투데이, 2023.03.03) 최경민 기자

## 1. [단독] 행동주의 펀드가 KT&G에 요구한 11건 중 9건, 주총 상정될 듯/ “포스코 10% 탄소 감축만으로 부족”...주주 ‘불개미연대’ 나섰다

- 주주행동주의가 올해 초 주총시즌에서 거세게 일고있는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가 KT&G에 요구한 주주제안 11건 가운데 9건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제기됨
- KT&G는 한국인삼공사 분리 상장과 자사주 매입 등 2건을 제외하고 주당 배당금 1만원, 분기 배당 도입 등 다른 안건들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임
- 한편, 기후변화청년모임 중 가장 회원수가 많은 빅웨이브가 주축이 된 이들은 17일 포스코홀딩스 주총에 맞춰 공개주주서한을 보내고 ‘포스코홀딩스 불개미연대’까지 조직해 3일 여의도에서 일반 주주, 기관투자자, 의결권 자문사 등을 상대로 캠페인 내용 설명회를 가짐
- 직관적인 카드뉴스 제작, 홈페이지 조직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한 대중캠페인, 투자자 대상 설명회 까지 국내에도 MZ를 중심으로 한 기후행동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있음

(조선일보, 2023.03.02) 권순환 기자

(한겨레, 2023.03.02) 최우리 기자

## 2. 서스틴베스트 “LG화학 등 5개기업 기후변화 전환 리스크 높아”

- 서스틴베스트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산업 및 개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배출 집약도)을 분석함
- 이에 따라 3년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POSCO홀딩스(포스코)였고,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쌍용 C&E이었음
- 온실가스 배출 리스크와 환경 법규 위반 리스크가 둘 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기업은 LG화학, POSCO홀딩스, KCC, 롯데정밀화학, 영풍 등 5개 기업이었음

(연합뉴스, 2023.02.27) 채세롬 기자

## 3. ‘콩비지·깨진쌀 활용’...식품가, 푸드 업사이클링 ‘훈풍’

- 식품업계가 깨진 조각쌀과 남은 콩비지 등 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음
- 업계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푸드 업사이클링(식품 재활용) 확대에 나서는 것임
- CJ제일제당은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인 ‘익사이클 바삭칩’의 편의점 판매를 시작하고 CJ푸드빌 뚜레쥬르는 ‘착한 빵식 통밀 식빵’ 선보임
- 삼성웰스토리는 단체급식과 식자재유통사업 전 분야에서 푸드 업사이클링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음

(아시아투데이, 2023.02.27) 박세영 기자

### 1. “바닷물로 ‘그린수소’ 만든다”…현대중공업, 산학연 공동개발 돌입

- 현대중공업이 바닷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그린수소’ 에너지로 사용하는 이른바 ‘해수 수전해 시스템’의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굿모닝경제, 2023.02.26) 이세영 기자
-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 수전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수 수전해 시스템 핵심 기술 공동 개발 업무협약식을 가졌음
- 이에에는 한국조선해양, 현대오일뱅크, 한국재료연구원, 서울대학교, 부산대, 테크윈, 희성축매 등이 참여했음
- 연구실 단위의 성과가 산업체에서 양산화 및 현실화되면, 무한한 자원인 해수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한화솔루션, 재생표준인증 ‘GRS’ 획득… 폐플라스틱 재활용 본격화

- 한화솔루션이 재활용 폴리에틸렌(rPE)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본격적인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 나섰다 (머니S, 2023.02.28) 김동욱 기자
- 한화솔루션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rPE 소재에 대해 글로벌 인증기관인 컨트롤 유니온으로부터 국제 재생표준인증인 ‘GRS’를 획득했음고 밝혔음
-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획득한 유럽연합 기준의 지속가능성 관련 인증 ISCC plus에 이어 연달아 공신력있는 국제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됨
- 한화솔루션은 지난해부터 생산을 시작한 rPE 기반의 산업용 재생 포장백 사용을 늘릴 계획임

### 3.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태국 대기업과 ESS 시스템 구축한다

-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 싱가포르 테스가 태국 대기업 SCG와 손잡고 재생에너지 활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파이낸셜뉴스, 2023.02.27) 최용준 기자
- 27일 SK에코플랜트는 테스와 태국 SCG 인터내셔널이 21일(현지시간) 태양광발전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음고 밝혔음 (신아일보, 2023.02.27) 서종규 기자
-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ESS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추진할 계획임
- 테스는 재사용 배터리로 만든 ESS의 안정성 및 경제성 분석을 맡고, 향후 SCG에서 배출하는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추출, 배터리 소재로 재탄생시키는 리사이클링 협력안도 구상하고 있음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2.24(금) ~ 2023.03.02(목)

제공일시 2023 03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지구온난화 임시로 막는다? 태양복사 조정기술에 주목

- 지난 27일(현지시간), 유엔 전문가 패널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태양지구공학 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 태양지구공학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일부 반사해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술임. 태양복사 조정(Solar Radiation Modification, SRM)과 같은 기술이 이에 속함 이 기술이 개발된다면, 약 200억 달러(약 26조원)으로 지구 온도를 연간 1°C로 냉각시킬 수 있음
- 유엔 전문가 패널과 과학자 그룹 모두 태양복사조정기술은 실행이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후 목표 달성이 힘들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태양복사조정기술은 현존하는 탄소 배출 상쇄 기술에 비해 간단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상업적 시장에서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유엔 전문가 패널들 역시 “냉각 비용이 연간 1°C당 200억 달러(약 26조원)로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 및 조직이 불법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태양복사조정기술은 불법 배포가 가능하므로 이 기술의 가능한 사용에 대해 확립된 국제 거버넌스 규칙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 유엔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영구적으로 늦추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현재 전 세계가 파리 협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기후 행동이 불충분하다면 ‘태양 지구공학’ 기술에 대해 더 엄격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서도 UN 보고서는 태양 지구 공학 기술이 몇 년 안에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법이며 10년 이내에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개발 비용은 연간 수백억 달러가 들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컬럼비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및 NASA에 소속된 60명 이상의 과학자 그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7일, 공개 서한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큰 폭으로 삭감하기 위해서 탄소포집과 같은 탄소 제거 산업(Carbon Dioxide Removal, CDR)을 사용하는 일은 환경, 기술, 비용이란 큰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CDR을 사용하여 1.5°C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도전과 기후 시스템의 느린 대응으로 인해 단기간에 충분한 규모로 구현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 과학자 그룹은 이 중에서 성층권 연무질 개입과 해양 구름 표백 기술을 ‘태양 복사 조정’으로 구분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기술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만한 연구가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덜 해로울 수 있다”고 전했다
- UNEP의 수석 과학자인 안드레아 힌우드(Andrea Hinwood)는 “그동안 SRM 연구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SRM 기술에 우리의 유일한 환경인 지구를 노출하기 전에 위험 및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또 전문가 패널들은 현재 SRM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더 필요하며 이 기술을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간을 벌기 위한 일회성 기회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팩트는, 2023.03.02) 유미지 기자  
(CNBC, 2023.02.27) Catherine Clifford 기자